

1p 독서 이론 setting (권장시간 : 3~5분 내외 처리)

22학년도~ 신유형. 예열 및 독서 이론 확립. 평가원 배려.
가장 먼저 처리하여 국어 정보처리 이론과 원리 remind & setting에 활용

1. 수능 독서 성격의 정보 설계 - 독서 내용+ **구조**

2. 1st 문항설계 = 주제+전개방식(내용<구조)

3. 2nd~3rd 문항. 혹시나 막히면?

⇒ **주제 구조 정보**가 차판단 **설계**, 그리고 하향식 집중

⇒ 단순한 일치, 정보 확인, 정답 근거판단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기본 중 기본.

⇒ 이.제.는 **정보가치 + 구조 처리 역량까지 필요!**

3~p 독서 평이~준킬러~킬러 (권장시간 : 7~10분 내외 처리)

4~p 독서 킬러~ (권장시간 : 10~15분 내외 처리)

올해는 킬러 이상의 난이도가 될 수있음

위의 독서 이론 base 아래의 접근법 적용 필요

수능 독서 정보처리 안 되는 문제와 원인

- 80분 안에 절대 처리 불가할 정도로 정보량 폭발
- 그런데 정보 처리에 충분한 내용은 또 불충분
- 완결성 떨어지는 정보 설계

배경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정보 성격 그대로 출제+처리
Big Data ⇨ Data Structure 분석 ⇨ Crawling
네이버에 '2020-9월 소유와 점유 지문' 검색해 보면.
시스타 소유 내용. 법정스님 무'소유', 구운몽 양'소유'
원 상관임? 넘 그거 읽음? 그냥 넘기고 선택/집중.
수능 지문도. 모든 정보 100% 처리 불가한 정보량/시간 이유 생각.
이젠 언어영역 시절 문제 접근법 그만.

해법은?

- 주제, 즉,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 구조, 처리
-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1년 6개월만 지나도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정보량이 새로 생기는 시대임. 절대 모든 정보 완벽 처리 불가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대상은?**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정보. 동시에 그 정보간의 관계, 즉 구조 처리가 되어야 유의미한 정보 처리 됨.

철학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과학기술 지문 내용에서 보이듯

철학의 지문의 흐름은 위에서 언급 + 계속 이어지는데

철학 ⇨ 현상 만들

따라서, 현상의 본질이고, 이 시대정신들 통찰하길 원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바람.

동양 = 서양철학 비교대조 및 발전흐름

예를들면

관념론으로 시작했던 인류의 사상은

신학-철학-자연과학으로 이어지며 발전

특히, 경험주의/경험론의 발달로 지금의 변화를 가져 옴

문제는 동양은 채국하다가 뇌피셜하다 망함. (청/조선/중화사상)

이 = 형이상학 = 원리, 진리, 이상, 도덕, 신, 이데아, 성리학

기 = 자연과학 = 사물, 대상, 구체, 교정 대상, 성리학 미만 잡다학문

이 흐름 잘 잡으실 것.

특히나 2019 수능 역대 지문인 우주론은 위 흐름임

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경제 지문 출제도의도에서 보이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한글 문맹이 아니라 '실생활지식 문맹'

관습법 - 판례법 - 대륙법 (법계) 특징

따라서, 보통 법률 지문의 구조와 내용은

- 예시-원리로 초반부 세팅. 원리 세팅이 중요
- 원리의 사례 적용
- 문제는, 성문법 적용 과정에 사례별 문제가 따름
- 그 해결책

초반부 주제 예시-원리(법률)세팅

후반부는 P-S P-S P-S P-S

... (계속 반복)P-S

지문 구조는 대체로
원칙 구조임 그런데?
왜 2020-9 소유 점유 어려울까?
하향식 독서모형의 부재 때문!

상호작용식(feat 하향식)!

하향식 독서모형 -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상향식 독서모형 - 단어, 문장, 문단, 글, 글에만 집중하여 정보 처리

상호작용식 - 둘다

실생활 연결되면 많이 쉬워짐

특히, 정보량 터진 행정입법지문 => 구조, 표처리 뽀뽀하게

이해 안 되는 예약지문 => 구조, 표처리, 논리 처리 뽀뽀하게

2p 독서 상호텍스트성=(가)+(나) 주제통합형 (권장시간 : 8~12분)

171후 출제된, 1지문 2이상 주제 지문의 유형 확립 버전. 21수능부터 출제 (가)(나)각각은 3~4단락 구조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완결성 갖춘 동시에, 전체 주제 처리가 핵심

1. 1st 문항 = 공통 주제구조. 막히면, 전체 포괄 주제와 그 전개방식에 집중

2. 2nd (높은 확률로) (가)지문 포괄 주제 및 구조. 경우에 따라 원리 이해 적용

3. 3rd (높은 확률로) (나)지문 포괄 주제 및 구조. 경우에 따라 원리 이해 적용

4. 4th (가)(나)비교 대조 통합형 + 지문 원리 이해 적용

5. 5th 전체 원리를 보기에 사례 적용하거나, 추가 보기를 주고 비교 대조

6. 일반적으로 특정 내용에 대한 찬반 관점, 절충 관점, 동양-고전 관점을 다루거나, 예술 지문, 법률 지문, 경제 지문등을 다룸

과학기술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2019수능 역대급 지문 우주론 - 과학기술 아님!(A단락+31번 문제만 과학기술도 아니고 '국어과' 기반 과학기술'적'사고) 결론은 철학 지문

2018-6월 동양철학-법제개혁론

2018-수능 서양철학

2019-6월 서양철학 - 동양전래

2019-수능 서양철학 - 동양전래

이 흐름임. 제발 좀. 우주론? 과학기술? 절대 불가.

그렇다면, 최근 평가원 과학기술 지문 특징과 문제 원인

- 정보량 폭발
- 완결되지 않은 정보(생략, 압축, 변형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

해결

1. 단락~2단락 초반 주제 set. 각 단락 소주제.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
2. 정보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
3. 원리/수학 공식 무조건 처리
4. 때때로 표/도식화/그림 필요
5. 위의 정보 처리 ⇨ 정답 선지 집중 처리 사고 흐름

경제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평가원 기출 연계 + ebs 연계 + 교육청 참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금융'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

2018-6 통화정책 (이 지문부터 특이점)

2018-수능 정책수단-오버슈팅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바뀐 1997 IMF의 대표 현상 환율 폭등 현상임)

2019-9월 CDS-P (기존 경제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생상품임)

2020-3월 주식회사-순환출자 (본질은 '금융'자본주의의 모순과 태동에 대한 원리임. 이때 나는 3년 안에 나온다 했는데 3개월 안에 나온)

2020-6월 대망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정책 이때 다 터져나감

2020-수능 BIS 지문(적중)

이제 ebs 연계로 Q.E(양적완화)-MMT(현대통화이론)-출구전략, 자산가치 폭등-부동산, 블록체인기술-코인-기존 통화와 상관관계 출제 가능성

즉, 경제 기본 원리 이해에 대한 확립 필수, 특히 창업론 출제도 가능성

논리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2019수능 가능세계 복수 정답 시비는,

평가원 수능 국어의 출제 원칙에 따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음

출제자가 유도한 사고 흐름으로 정답을 골라야 점수를 주는 시험

몰리도, 논리도, 언어도, 경제도 아닌 수.능.국.어.

즉, 국어교육학 베이스의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시험 범위임.

무엇보다 20수능 전통적 인식론자 (참, 거짓, 모른다)

=> 베이즈주의자 (참, 거짓, 모른다 대신에 확률)

그래서 수능도 가장 옳은 것은? = 확률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과 같은 발문 구조를 쓰는 것임.

1. 평가원 기출 연계 + ebs 연계 전체
2. '고3' 수준 가능한 수준의 국어사고, 국어에 관련된 논리 내용을 다룸
3. 하지만, 정보량 폭발
4. 완결 안 되는 정보 (생략, 압축, 변형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

문제 발생. 해법은?

1.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
2. 정보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
3. 1과 2를 바탕으로 이해한 원리 적용
4. 정보 관계/구조 중심 필수 처리

저는 8시 40분, 마지막까지, 당신의 점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끝까지 맞서 나가십시오.

배인호 초격차 국어 연구실 드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 당신의 무운을 빌며, 온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배인호 초격차 국어 정보처리 공식집 '시험장에 들고 가는 파이널 1장'

고전시가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서정장르 접근법 베이스
 2. 소리나는대로 속발음, 한자어/문맥 추론
 3. 전형적 주제

cf)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충+효, 충=연군지정, 충=관직 나가야지 = 시험치려면 학문 해야지 - 학문=수양해야지 = 학문=수양하려면=자연친화 - 자연친화 하다보면 또 몰아일제. 매우 뻘함

cf) 고려가요 - 삼분후 (3음보, 분절체, 후렴구)
 근대 이만 개념 1도 안 중요함. (시대에 따라 개념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학제 흐름이 있음. 올해는 아님)

*시각 똑같은 나라면,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아! 관직 나가고 싶구나, 근대 자연도 좋구나, 방향했겠네. 자연 놀다 보니 좋구나,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맨날 이런 거임.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 게 출제 목표

문학'기타'장르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수필	희곡-시나리오
1. 시 + 소설 + 독서 구조 특징	1. 서사장르 기반
2. 주제 구성 문제 소재 표현 5요소	2. 장면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함
3. 깨달음이 주제. 초반부 흐름에서, 마지막 단락 중요	3. 따라서, 장면상상 필요, 지시문 (내면심리), 해설(압축제시, 정보압축, 정보가치 높아짐) 매우 중요
4. 주제 + 흐름 = 깨달음 잡기	4. 장면에 대한 상상 필수

문학'서사'장르 정보처리공식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서사를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
 3. 인물(=성격) + 내면심리 파악이 핵심
 4.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방식, 특이한 배경

***첫부분 구성 잡기. 인물 사건 배경 preset 잡기

*인물 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
 *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시킴
 *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
 *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
 *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람
 *서사 장르 감상하며 뭔가 느끼면 = 100점 줌
 *그렇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줄거리 파악.

*주제는 매우 전형적 서사 흐름 + 구조

문학'서정'장르 정보처리 공식

비문학(=이성) + (문학=감정) = 완전한 인간 cf)15수능 칸트 미감적 판단력, 주관적 보편성, 미감적 공동체 => 문학적 관습

문학을 왜 하나요? '국어'시험이니까. 논리학 시험 아님!
 서정장르 교수학습 목표 : '공감능력 향상' = 정전교육목표. 따라서...

1.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반응)
 =<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

2. 문장 구조 S O C Ad V & 수식, 반복, 강조
 3. 전체 구조, 시상전개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
 4.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확률 87% (14~22기출 14문항 중 11문항)

5.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체득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 했을까? *시인/화자 공감 = 100점 출제 의도

21-9평 오답률 top1 비평교육&이본교육

현, 소장학파 => 임용된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취 출제 배경 1. 해석상 근거 + 문학 교육 목표 합치
 2. 문학적 관습의 논리적 근거 확립

비평문 1. 작품 감상의 절대적 준거 : 비평문>작품내용>보기
 2. 문학 개념어 기반 독해
 3. 필요시 독서 구조
 4. 작품 해석이 제시 => 철저하게 작품 연결 => 문항 => 정답선지

이본교육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작품의 변이, 장르적 변이의 C 원인과, E 결과와, 사과의 절차를 다룸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저는 여기까지. 이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몫
 - 국어강사 배인호. 감사 인사 올림.

언어(문법)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평가원 피셜 문법 교수학습목표 '기초적인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1. 절대로 어려운, 심화 개념, 혹은 몰라서 틀릴 개념을 출제하지 않는다.
 2. 절대로 교과서 수준의 누구나 다 아는 개념수준에서 나온다. (안 믿기면 얼마든 확인 가능! 14~22기출)
 3. 평가원 피셜, 중세국어 교수학습 목표
 - '현대 국어, 문법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
 - 9개념만 암기. '논리적 사고의 수단' + 현대국어 VS 중세국어 비교 추론
 -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 + 한자어/어휘 문맥추론 => 거의 정답!

4. 2009개정교육과정 VS 2015개정교육과정
 - 복수정답VS정답 논쟁(평가원 연구교수님/평가원에 영향력 있는 교수님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안 보임. 이걸 모른다? = 수능 모른다)

5. 킬러 문항은 절대로 어려운 개념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즉, 평가원의 출제에도 파악 못해서임. 대부분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 개념과 실제 문제풀이에서 적용되는 이면적 개념 차이

6. 독서통합형. 독서 아니다. 문법이다. 따라서,
 - 문제부터. 문법 문제 개념 적용하듯이
 - 필요한 개념 위주 정보처리, 필요시 독서 정보 구조처리
 *공부하면, 내신 수준 개념 문제는 누구나 다 맞음.
 *문제는, 킬러/독서통합/중세국어. *개념/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 측정목적

매체 정보처리 공식

화용론의 한 연구 분야로 시작. 실제 체감 유형도 비슷.
 따라서, 올해 수능 정도는 화법 유형을 바탕으로 접근법 확립해도 큰 무리 없음. 화자 접근법 참조

1st 정보전달의 화작문 정보처리 공식

1. 지문 설계 - 독서 내용+ 구조
 2. 1st 문항설계 = 주제+전개방식(내용<구조)
 3. 2nd~3rd 문항설계에 따라 막히면?

⇒ 구조에 집중 단순한 일치, 정보 확인, 정답 근거판단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기본 중 기본. 이.제.는 정보가치 + 구조 처리 역량까지 필요!

4. 괄호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다수 중요

5. 신유형이라 판단되면? ⇒ 구조에 무조건 집중
 cf) 청중의 반응 => 정보처리규격 : Q(의문), 경험, 배경지식, 긍정/부정 가치판단, 의문, 추측, 추론 ... 처리
 cf) 자료 활용 => 지문의 주제-구조 연결임. 절대 새로운 내용 없으며, 지문의 주제-구조에 따른 정보처리를 얼마나 평가원의도에 맞게 처리했느냐

6. 지문 정보처리 규격 ex) 인사말, 출처, 서적 인용, 전문가 견해, 수치 통계 자료, 등

2nd 상호작용 화작통합형 정보처리공식

1. 대화(상호작용유형) ⇨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화제전환 + 여전히 구조, 전개방식 집중처리

2. 대화 특성상 정보량 터짐 + 화제 전환.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지문-문항 전반 설계 파악 후 접근으로 시간, 발체득 횟수 대폭 감소 필요

3. 특이유형 cf)고쳐 쓰기 (관련개념 :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포괄성/일관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바탕. 문법요소 = 피동사동, 중의성, 부정, 중복 표현 등)
 - 정답선지- 맞춤법확률5%미만(그것도 언어영역시절)+글의 구성원리 80%
 - 정답선지-macro 문법파트(그 중 문법요소파트)15%
 - 따라서, 고쳐쓰기 유형은 매크로한 문법 + 글의 구성원리에 초점

cf) 표현하기 (원래 문학 문항 따라서, 내용+형식/표현. <보기> 조건 확인 후 발체/기준 잡아 처리)
 cf) 자료활용유형 (원래 작문유형이나 통합형 출제시 대부분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선지' = 정답)

3rd 설득의 화작문 정보처리 공식

독서 지문의 10% 이내만 차지하는 '논술문' 유형 특성 => 작문 유형

1. 논증구조 필수 : 주장+근거
 덧붙이면 : 전제/도입/배경+ 주장+근거 +예시
 과거, 서울대 논술에서는 없으면 감점 연세대 논술에서는 있으면 가점
 전제+ 주장+근거+예시+ 예상가능반론+재반박

2. 비판 유형 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모름. 따라서, 너무 간단 정답유형1. 상대가 '언급'(범주)
 정답유형2. 상대의 주장(반대서술)
 논술기준, 전제 비판 주장 비판 근거 비판 예시 비판 전제와 주장관계 비판, 주장과 근거 관계 비판, 타당성, 적절성, 가치우열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평가원의 틀이 있으나 학생 체감 zero. 그래서,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 인지, 상대방이 언급한 주장의 반대 서술인지만 판단해도 95% 정답.